

계몽과 경건의 변증법 - 18세기 독일 사상의 지형도

The Map of Thought - Dialectics of German Enlightenment and Pietism in the 18th Century

정인모 (In-Mo Jeong)*

Abstract

German Enlightenment and Pietism in the 18th century have some areas in conflict with each other. However, when seen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se are the forms of faith created in opposition to the orthodox which was a church and doctrine centered at the time. Of course they took the different paths; the Enlightenment pursued something rational with human mind, and the Pietism believed the grace of God should be stowed in the heart and reflected through actions.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y originates from the rejection of the orthodox doctrine or recognition of existing Lutherans.

This paper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centering on the view of faith of Nicolaus Ludwig Zinzendorf, who is rated to have not only completed but also overcame the view of faith and thought of Gotthold Ephraim Lessing, one of the outstanding representative thinker of the Enlightenment eras. Although the two have differences in their orientations in that Lessing emphasizes a rational and tolerant faith whereas Zinzendorf emphasizes the 'theory of the heart', they both have the common ground in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pirit of Jesus, Urchristentum.

In other words, they emphasize that the rationality of the mind and piety of the heart is not something that is separated or divided. Rather, they are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in regard to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pirit of Jesus, and must be integrated dialectically through communications.

Key Words : Enlightenment, Pietism, Lessing, Zinzendorf, Dialectic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jim@pusan.ac.kr

2018년 07월 04일 접수, 08월 24일 최종수정, 08월 29일 게재확정

1. 서론

17세기 프랑스 사상가 데카르트(Descartes)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의 Cogito 명제를 내세움으로써 합리적 철학이 시작되었다. 이어 18세기에 진입하면서 영국의 존 로크, 데이비드 흄 등과 독일의 라이프니츠, 볼프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사안을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 태도를 갖고 따져본 후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으며,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무조건 덮어놓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리를 따지며 사유한다는 18세기의 이러한 합리적 세계관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¹⁾ 여기에는 이성과 양심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선의의 활용, 기대 등 긍정적 의미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서 ‘머리’(이성 혹은 합리)와 ‘가슴’(감성 혹은 신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사고 없는 열의, 감정 없는 사유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18세기에 도 중요한 화두였다. ‘머리’와 ‘가슴’의 분리 사상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굳건한 관습 중 하나였고, 18세기 계몽주의 출현으로 인해 ‘가슴’과 ‘머리’의 이러한 분리가 종교적 측면에서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머리’와 ‘가슴’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유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이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머리’와 ‘가슴’은 한 지체 안에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한 각각 신체의 부분으로서,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이 둘 다 필요하며 서로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이러한 사상의 본격적 출발이었던 18세기의 사상적 조류를 개관한 다음,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계몽주의를 정리해 보고, 이 계몽주의와 병행하여 등장하는, ‘가슴’이라 할 수 있는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신앙관을 계몽주의와 비교해서 살펴본다.

결국 이 두 사조에는 서로 대립되는 면이 존재하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때, 이 두 사조 모두 당시 교회, 교리 중심의 절대적 주류에 반대해서 생겨난 신앙형태라

1) 그래서 슈테리히는 ‘우리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계몽주의 시대만큼 철학이 여론과 사회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Störig, 1999; 박민수 역, 2008: 587).

는 점에 천착하여 이 두 사조의 공통 및 상이한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계몽과 경건의 조화로운 통합 모색을 시도한다. 올바른 사고와 뜨거운 신앙적 체험, 즉 계몽과 경건이 서로 상치되기보다 이 둘은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원주의 사상이 자리 잡은 포스터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반지성주의가 만연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한국 교회 현실에 바람직한 길잡이 내지는 희망의 불씨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다.

II. 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18세기가 되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세계상의 변화가 도래했다. 신, 혹은 종교 중심의 세계관 대신 인간의 이성에 의한 계몽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화두의 중심에 서게 된다.²⁾ 또 절대주의의 권위는 도전 받기 시작했는데, 절대주의 대신 자유를, 신분질서 대신 평등, 편견 대신 경험과 학문의 인식을, 교의주의 대신 관용을 중시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종교에 있어 전통적 신을 벗어난 인간의 새로운 사고와 삶의 양식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 및 합리주의자들의 철학은 교조적 신학자들의 영향을 감소시켜 갔다. 종교적 신앙 권위의 자리에 이성적인 교훈과 관용 이념이 등장했다. 달리 말해 계몽주의적 신앙관은 ‘신의 은총에 의한’ 봉건적 세계상을 거부하고, 이성에 근거하는 새로운 사유를 시작한다. 교회의 봉건적 권위에 반발하여, 이성의 판단과 인격적 존재를 존중하는 사상이 등장했던 것이다. 계몽주의는 전통적 권위를 비판하고 인간의 사유를 신학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일체의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는 그러한 자율성 추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독일 계몽주의는 프랑스와는 달리 비교적 무신론적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독일 계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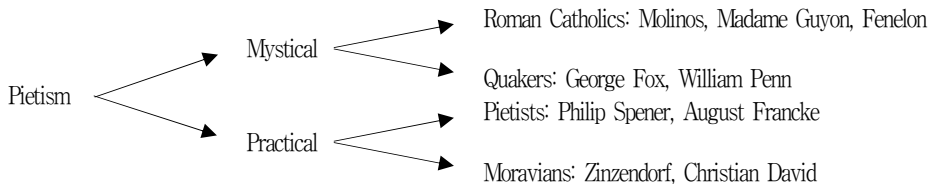
2) 독일 계몽주의에 본격적인 골격을 갖추게 한 칸트는 일찍이 『계몽이란 무엇인가?(Was ist Aufklärung?)』에서 계몽은 인간의 ‘미성숙(Unmündigkeit)’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성숙의 원인으로 ‘소심함(Feigheit)’과 ‘게으름(Faulheit)’을 들면서 ‘감히 ... 하려고 시도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Sapere aude! Habe Mut, dich deines eigenen Verstandes zu bedienen!)’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칸트는 이어 인간은 미성숙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ant, 1976: 9).

주의는 개신교와 밀접히 관련되어 생성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벨(Pierre Bayle), 볼테르 등의 계몽주의가 강한 이신론적 성향을 가졌다면 라이프니츠, 레싱(G. E. Lessing)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계몽주의는 프랑스만큼은 과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프랑스 계몽주의가 독일의 계몽주의와는 달리 다소 과격한 성향을 가졌다면(Störig, 1999; 박민수 역, 2008: 554), 독일의 경우 전통 기독교에 관해 온갖 비판을 가하면서도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프랑스보다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독일의 계몽주의는 새로운 철학체계를 제시하기보다 실천적이고 도덕적 이성의 우월을 강조하고 실생활에의 영향을 지향했다.

18세기 독일에서는 철학적 계몽주의와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성의 가치평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이것이 교회의 정통교리를 압박·거부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주관적 경건성은 보지(保持)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경우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서로 근본적인 다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통 교리에 대한 강한 거부 및 개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8세기 계몽주의(1720-1785)와 경건주의(1740-1780)는 거의 동시에 생겨난다. 물론 계몽주의보다 경건주의(혹은 감상주의³⁾)의 전통이, 중세 신비주의에까지 이른다고도 말하지만,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18세기 동시대에 발생한다. 경건주의의 뿌리가 고대 영지주의(그노시스 파), 중세 신비주의와 관계있다고 하지만, 18세기 등장한 소위 독일 경건주의는 이것과는 달랐다. 즉 전자가 신비적 내적 체험만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개인적 영성을 통한 신과의 내면적 교통이라는 생활의 실천적 의미가 강했다. 이를 대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Pietism Influence c.1650-1750



Source: <https://goo.gl/images/w35S38>

3) 종교적 측면에서는 ‘경건주의’, 문학의 영역에서는 ‘감상주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둘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독일 경건주의(Pietismus)는 18세기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19세기는 물론 오늘날까지 종교 사상에 미친 그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요한 아른트(Johann Arndt)에서 출발하여 슈페너(Spener), 프랑케(Francke), 친첸도르프(Zinzendorf)로 이어지는 독일 경건주의는 영국 퓨리턴과 더불어 종교개혁 이후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적 혁신운동(religiöse Erneuerungsbewegung)(Wallmann, 2005: 21.)’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건주의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 이후 각 종파의 교리나 신조를 강조하는 정통주의(Orthodoxie)가 생겨났는데, 개신교 정통주의는 루터가 배척했던 스콜라 철학(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변증학)을 다시 수용하려고 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적 시도가 있었으며, 경건주의자들은 바로 루터교 제도권 안에서 교리보다 실천적 삶을 중시하였다.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진정한 기독교 정신(Das wahre Christentum)』을 쓴 요한 아른트에 이어 슈페너는 저서 『경건한 소원들(Pia Desideria)』을 통해 경건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교리와 삶의 관계가 이제부터 이론적인 요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슈페너는 경건한 루터교 신자인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그 자신도 루터를 존경했을 뿐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다만 슈페너의 견해로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교회시스템은 개혁 되었지만 개인 신앙의 내면과 영성까지는 개혁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교회의 영적 쇄신을 다시 부르짖게 된 것이다. 루터가 ‘오직 믿음 주의(solafideism)(Wellbery, 2004: 225)’를 강조했다면, 슈페너는 ‘신앙 경험’을 한 인간의 내적인 변화, 즉 형식적, 학문적 신앙이 아니라 신과 교통하는 내밀한 신앙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슈페너에 이어 프랑케는 경건주의 사상을 교육, 사회 복지에까지 확대시킨 사람이었다. 할레(Halle) 대학을 중심으로 세상 도피적 공동체보다는 주위 일상생활에서의 종교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슈페너, 프랑케에 이어 경건주의를 명실상부하게 꽃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친첸도르프는 복음주의 정신에 충실했던 인물로서, 헤른후트(Hermhut)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여 영적 각성운동과 교육, 그리고 선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초교파를 지향하면서 종교의 교리화를 거부하였고 생활 속의 실천적 신앙생활을 강조하였다. 그가 추구한 소위 모라비아(Moravia) 공동체는 평신도

신앙의 수준을 성직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친첸도르프는 경건주의를 완성한 사람이자 또 경건주의를 극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계몽주의와 경건주의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또 다시 강화되는 종교의 교리화에 맞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계몽주의는 종교의 교리화에 반대하며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경건주의 역시 종교의 교리화에 반대하며 개인의 영성과 신과의 직접적 교감을 강조하였다. 이 사조 모두 종교의 교리화와 경직화에 반대하여 생겨났다는 공통점은 가지지만, 대안은 달랐다. 다시 말해 계몽주의는 이성을, 경건주의는 감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전 양면에 불과하며,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지나친 합리성에 반발한 인간 내면의 감정을 중시한 면은 있지만 결국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안삼환이 경건주의(감상주의)를 계몽주의의 큰 사조 안의 하나의 운동으로 간주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안삼환 외, 2016: 154).

1730년 무렵부터 등장한 경건주의(감상주의)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이성적인 감성문화’였다. 이것은 ‘내면지향적 계몽(김병욱 외, 2001: 258)’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몽의 합리적 조류와 경건의 감성주의적 조류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신적 전제조건에 바탕을 둔 상호제약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레싱과 친첸도르프의 사상 비교

1. 레싱의 경우

프랑스, 영국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라이프니츠, 볼프 등에 의해 꽃 피운 독일의 계몽주의의 사상적 특징으로는 인간성(Humanität), 관용(Toleranz), 이신론(Deismus), 합리주의(Rationalismus)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레싱의 작품 - 특히 그의 대표작 『헌자 나탄(Nathan der Weise)』 - 에서도 이러한 독일 계몽주의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레싱의 경우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을 보기 때문에 이신론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가 계시를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 이신론적 계몽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따라서 레싱의 종교적 신념은 무신론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전통적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도 한 때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레싱은 이후 자기 스스로를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Liebhaber der Theologie)(Lessing, 1970: 130)’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함부르크의 주임신부 괴체(Goeze)와의 신학적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 이 논쟁의 금지가 낳은 작품이 『현자 나탄』이다 -, 레싱의 기독교 비판은 당시 성경만능, 혹은 성경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축자설, 성경무오설을 강조했던 루터 정통(Lutherische Orthodoxie)⁴⁾에 대해서 이지,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기독 정신(Christentum)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 그는 문자지상주의로 교리화된 루터교가 루터가 원래 표방했던 그리스도 정신과는 거리를 갖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예수와 당시 기독교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본다. 다시 말해 예수는 보되 당시 기독교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전통적 교리 중 성경무오설은 신앙인들에게 자유로운 정신과 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하나의 오류로 본다(정인모, 2012: 19).

레싱은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지, 죽은 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종교가 지적 유희에 빠져버렸다는 주장을 편다. 레싱의 입장에서 보면 성서 안의 자체 모순 부분, 비합리적 사건 등을 볼 때, 역사가들이 그런 것처럼, 성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축자적 영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레싱은 학창시절부터 경직된 루터 교회에 공격을 가하면서 ‘자유정신의 성서’를 강조한다. 그는 개인에게 믿음을 허락한 루터의 전통을 변호하며 - 이를테면 레싱은 루터의 큰 공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여한 자유, 기독교 정신에 대한 중재자 없는 독자적 해석 허용 등이다(Willmer, 1984: 24)- 성서의 연구, 종교에 대한 개인적 이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다. 레싱이 보기에 루터는 순수 기독교 정신을 발견하는 길 위에 있었던 종교연구가였다. 그래서 루터와 루터교 간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4) 원래 ‘바른 믿음(rechtgläubig)’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통(Orthodoxie)’은 경건주의 이후 언어의 세속화(Sekularisierung) 과정을 거치면서 ‘증오에 찬 외침’, 일종의 비하하는 욕설로 변하게 된다(Sperber, 1930: 513).

그리고 레싱은 기독교가 예수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예수는 그것을 발전시킨 선지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교가 기독교적 종교보다 더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교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변모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Willmer, 1984: 21). 신앙과 인간적인 면 중 인간적인 면을 더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현자 나탄』을 쓰게 되었고, 이러한 레싱의 신학 전통은 미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인간성의 새로운 문화(eine neue Kultur der Humanität)(Stolte, 1998: 27)’의 토대를 놓게 된다.

레스링은 종교의 이름으로 득세하는 증오와 광신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수단인 종교와 정치는 인간을 점진적으로 계도하여 이성과 사랑이 지배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Störig, 1999; 박민수 역, 2008: 585).

레스링은 『그리스도의 종교(die Religion Christi)』란 글에서 “그리스도의 종교(die Religion Christi)”를 “기독교적 종교(die christliche Religion)”와 구분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종교는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말씀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기독교적 종교는 너무 애매하고 다의적이어서 특정한 자리를 부여하기가 힘들다(Lessing, 1970: 71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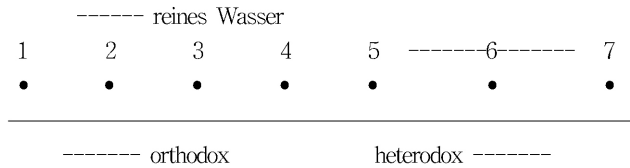
이로써 레싱의 기독교관은 종전의 신학적 해석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레싱은 예수와 기독교를 하나로 보는, ‘오직 성경’ 주장을 루터파의 오류로 본다. 성경의 무오류, 영감에 의한 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루터와 함께 레싱은 새로운 이상적 상태, 즉 황금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레싱에게 이성이란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개인에게 신적인 것(Göttliche)에 관한 명확한 상(像)을 중재해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요소(maßgebender Faktor)(Willmer, 1984: 158)’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싱의 경우 어느 특정한 부분 - 이를테면 원죄 등의 교리이다 - 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싱은 신비주의자도, 헤른후트 파도, 더구나 루터 정통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종교적 진리를 추구했고 ‘참 계시진리(echte Offenbarungswahrheit)’와 ‘거짓 계시 진리’를 구별하려고 시도했다(Schneider, 1953: 110).

칼 레싱(Karl Lessing)에 보내는 편지에서 레싱은 ‘묵은 정통(alte Orthodoxy)’을

‘깨끗하지 않은 물 (unreines Wasser)’에 비유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틀로 제시했다(Willmer, 1984: 157).⁵⁾

Table 2 Comparison among the old orthodoxy, the Neologen and the purer doctrine



깨끗하지 못한 물은 묵은 정통에서 자유주의자(Neologen)를 거쳐, 결국 중국에는 이 합집산, 무신론으로 이르게 하는 ‘잡동사니 분노’로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깨끗한 물은 루터로 나아가고 1 세기 초대 신앙에까지 거슬러 간다고 한다. 예수의 교훈도 덧붙여진 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조화와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종교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레싱의 당시 정통(Orthodoxie) 비판은 결국 루터 정신과 원시기독교 정신의 복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레싱은 신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신비적 초월주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계몽의 입장에는 서 있었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추구하는 초월성 자체를 신비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일반적인 계몽주의자라면, 레싱은 도그마한 기독교, 즉 원 기독교 정신에서 떨어진 종교를 비판했고, 이는 역으로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레싱은 계몽주의적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적 계몽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한다(김주연, 1991: 44).

5) 설명: 1- 온전한 기독교 정신; 오염되지 않은 물(Vollkommenes Christentum; ungetrübtes Wasser)
 2- 전통적 기독교; 원시기독교(Traditionelles Christentum; Urchristentum)
 3- 루터의 기독교 정신 의미(Luthers Deutung des Christentums)
 4- 묵은 정통: 깨끗하지 못한 물(Alte Orthodoxie: "unreines Wasser")
 5- 자유주의자; 분노(Neologen: 'Mißtjauche')
 6- 자유사상가 영역; 이신론; 소시아너; 아리우스 파(Bereich der Freigeister: Deisten, Sozianer, Arianer, usw.)
 7- 무신론(Atheismus)

어쨌든 레싱은 교리의 기계적 적용이 사랑에 앞설 수 없다는 루터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그의 유명한 작품 『헌자 나탄』에서 나타난 사상과 종교관은 ‘신=이성=사랑’의 화해라 볼 수 있다. 또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신의 계시라 볼 수 있다. 그는 “계시는 이성을 인도하였으며, 이성은 이제 홀연히 계시를 조명해주었다는 것이다(Lessing, 1970: 646).

레스링은 성서를 하나의 문서로 보았고, 전통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서 해석에 있어 도덕과 이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신학 역사에서 자유신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다.

2. 친첸도르프의 경우

그러면 친첸도르프의 입장은 어떠한가? 카멘츠(Kamenz)에서 태어난 레싱처럼 친첸도르프도 같은 작센 지방 출신 오베른 라우지츠(Oberen Lausitz)에 있는 그로스헨너스도르프(Großhennersdorf) 출신이며 레싱과 동시대인이다. 물론 친첸도르프와 레싱은 각각 1700년, 1729년 생으로 한 세대 차이가 난다.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친첸도르프는 존 웨슬리(John Wesley)와도 교분을 가졌고 선교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고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 신앙 체험과 실천을 강조한 운동이다(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14). 그렇다고 경건주의가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내면적인 면만 강조하지는 않았다.⁶⁾ 오히려 실제로 경건주의는 신자의 내면적인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였다(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14).

친첸도르프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기존 종교전통에 따르지 않는 비정통적 사상을 일부 지니고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향한 경건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첸도르프의 평가에 두 부류, 즉 젊은 친첸도르프의 거룩함애의 노력과 후기 친첸도르프의 신의 은총 강조 사이의, 혹은 종파를 넘어선 노력과 루터 정통주의 절대성 요구 사이의 긴장이 있지만, 그는

6) 칸트가 대표적인 예인데, 칸트는 경건주의가 강화된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사회론적 혹은 사회적 질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였다(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34).

어쨌든 초교과적 형제사랑의 통합을 통해 교회분열을 극복하려고 했다.

친첸도르프는 당대 독일 최고의 문인이랄 수 있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의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부분 -, 20세기 현대 신학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칼 바르트(Karl Barth)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바르트는 그의 신학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이었다. 바르트는 그를 두고 “가장 위대한, 어쩌면 근대의 유일하고 매우 전형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며, 또한 어쩌면 최초로 전형적인, 즉 모든 일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연합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Barth, 1960: 763, Schicketanz, 2002; 김문기 역, 2015: 234).

친첸도르프의 사상은 그의 대표 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Herz und Herz vereint zusammen)』에서 잘 드러난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어』(EG 251)라는 제목의 시는 두 번에 걸쳐 개작되었다(Schrader, 2006: 135). 친첸도르프의 시는 지금도 독일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많이 불리고 있는데, 1994년 ‘독일 개신교 찬송가 EKG’ 개편 작업 때도 친첸도르프의 많은 찬송 가사는 유지되었다. 루터 이후 찬송가 가사는 당시의 신앙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친첸도르프의 시작(詩作)은 보통 초기(1713-1720년), 중기(1721-1727년), 후기(1728-1734년), 세 국면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음을 나타낸 초기, 약간의 사회적 비판의 톤을 나타내었던 중기, 그리고 부드러운 톤으로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년의 시로 나눌 수 있다. 친첸도르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이 시를 통해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상처 등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시 형식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언어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친첸도르프같은 경건주의자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고대의 수사학이나 화려하고 장식적인 많은 바로크적 언어사용을 거부하면서 단순하고도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했다(Sperber, 1930: 503). 하지만 바로크에서 즐겨 썼던 은유적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⁷⁾, 이 시의 다음 부분은 ‘물’ 은유나, ‘불(Feuer)’과 ‘빛(Licht)’의 은유가

7) 경건주의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은유로는 ‘물 메타퍼(Wassermetaphorik)’, ‘신부 메타퍼(Brautmetaphorik)’, ‘갈망 메타퍼(Sehnsuchtmetaphorik)’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수직 역동(Vertikaldynamik)’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사용 - 이를테면 신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entgegen-, herab-, zu-, herzu-, herunter-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과 마음이 함께 모아
주님 품에서 안식을 찾네
너희 사랑의 불길이
주님을 향해 불 타 올라라
그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
그는 빛이시요, 우리는 그의 비침
그는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형제
그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네(Schrader, 2006: 138)

또한 친첸도르프는 이 시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바탕한 ‘우리’라는 형제애가 잘 드러나고 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Die Liebe des Menschen zu Gott)(Schrader, 2006: 27)’과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Die Liebe Gottes zum Menschen)(Schrader, 2006: 28)’을 강조했다.

오, 지체들이여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시오.
자기 형제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분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 준
그분
그렇게 그는 피까지 다 쏟으셨으니
당신 스스로가 어려워하고만 있다면
그가 얼마나 맘 아파하실까(Schrader, 2006: 138)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 이것은 친첸도르프의 주된 신학적 주제라 할 수 있다. 친첸도르프의 문학과 사상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문학의 경우 이를테면 쉴러(F. Schiller)의 『독일의 뮤즈(Die deutsche Muse)』에서 친첸도르프의 위의 시에서 보여주는 ‘물 은유(Wassermetaphorik)’ - 흐른다, 넘쳐난다, 스며든다 등 - 가 잘 나타나고 있다(Zimmermann, 2002: 2).

와 인간에서 신으로 향하는 auf-, hinauf-, aufwärts-, empor-, hinan-, dahin-, himmelwärts- 등이 있어, 하나님과 인간 가슴 간의 교통을 이어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Zimmermann, 2002: 10-21).

18세기 루터교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다(Willmer, 1984: 10). 그의 신학적 전통은 루터의 가르침, 보헤미안 형제 전통으로 보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한 단어 중 ‘형제들(Brüder)’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친첸도르프는 루터교의 경직된 교리 중심 사유에서 벗어나 개인의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기슴의 신학’을 설파했다.

친첸도르프의 노력은 또 ‘박애주의적(philadelphisch)(Brecht, 2006: 227)’라 할 수 있다. 친첸도르프는 루터교 신도였으며 비텐베르크와 할레에서 공부하고 튀빙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1700년 5월 26일에 경건주의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에게 경건주의 루터교도인 슈페너가 그의 모델이었다. 그는 영적인 삶과 모라비아 이주민들에 관심이 많았다.⁸⁾

친첸도르프는 새로운 종파를 만드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패한 가톨릭교회에 개혁을 요구한 사람이었다. 그는 차디차고 삭은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 즉 ‘교회 안의 교회(ecclesia in ecclesia)(McCormack, 2005: 14)’를 시도했던 것이다.

친첸도르프는 레싱이 말한 성서의 본질, 기독교인 전통, 종교적 관용 등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간에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레싱은 친첸도르프가 기존 루터교회를 비판하고 바꿀 생각은 없는 사람⁹⁾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레싱은

8) 모라비아는 보헤미아의 한 지역이며, 여기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순교자 안 후스(Johannes)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 교회에 속해 있었으나, 9세기 불가리아와 모라비아의 왕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함에 따라, 또 그리스의 두 수도사 메토디오스(Methodius)와 치칠로(Cyrillus)에 의해 신앙을 받아들였다. 메토디오스는 첫 주교가 되었고 치칠로는 성서를 슬라브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 이후 그들은 로마 가톨릭에 속했으나 종교개혁 시기 동안 개혁자들의 신조를 수용했다. 1621년 교황청의 심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갔고, 신앙을 지키려했던 개신교 신도들은 타 지역, 즉 영국이나 독일의 작센 주,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크리스티안 다비드(Christian David)의 신조를 가진 자들로, 1722년 모라비아에서 루사티아(독일 동부와 폴란드 서남부에 걸친, 엘베 강과 오더 강 사이의 지방) 상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친첸도르프의 보호 하에 헤른후트 공동체를 형성하여 신앙을 지켜왔다. 종교 박해를 피해 떠난 많은 피난민들이 헤른후트로 몰려들었고, 여기에는 루터교도, 칼빈교도, 보헤미안 형제교도, 심지어 소시언(유니테리언)들도 있어 복잡한 구성 단체를 이루었으나, 친첸도르프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들 신앙요구를 수렴하여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나갔고, 자신은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을 하는 루터교도로 계속 남아 있었다(McCormack, 2005: 11-22).

9) 실제로 친첸도르프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보다 끝까지 루터 교단을 떠나지 않았고, 다만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도모했다.

친첸도르프를 ‘대담한 평신도 친구(verwegenen Freund der Laien)(Willmer, 1984: 23.)’로 보았다. 레싱은 루터교가 주님의 인간사랑, 그의 대속죄물 등에 대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원논쟁에만 빠져있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눈을 돌리려 한다고 했다. 루터교가 예수의 인간되심을 등한시하고 그의 신성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어쨌든 레싱과 친첸도르프 공히 루터교의 경직된 교권주의에서 벗어나 이성 혹은 계시의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다. 이로써 레싱의 계몽적 이성과 친첸도르프의 경건적 감성의 통합, 혹은 이 둘의 변증법적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

IV. 결론

예수 출현 이후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종교적 교리화가 늘 있어왔고, 이것이 또한 국가 권력과 야합하면서 종교적 타락이 진행되기도 했다. 중세의 종교관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으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그릇된 종교관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시도, 즉 왜곡된 구원관, 신앙적 가치 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시도였다.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는 슬로건으로 예수 정신의 참 종교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루터의 신학적 전통은 시대가 갈수록 역시 교리화되고 추상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실제 신앙생활과는 동 떨어진 교리가 강조되다 보니 여러 가지 예수 종교의 가르침이 희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요구가 더해진 성경관이 요구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레싱의 『현자 나탄』이다. 여기서 레싱은 종교적 관용, 교회, 교리 중심의 성서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단행하면서 순수 복음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시대 슈페너, 프랑케, 친첸도르프로 대표되는 소위 독일 경건주의의 발생은 이러한 요구, 즉 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실천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18세기의 시대정신에 따라 탄생한 계몽주의의 기독교 비판은 신앙의 부정이 아니었으며, 단지 문자를 예수와 일치시키며,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통적 경전제일주의와 맹목적 신앙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레싱의 대표작 『현자 나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듯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주창하였고 더욱 인간적인

배려, 온유함, 관용, 선행 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18세기 경건주의는 합리주의의 반대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서용좌, 2008: 132). 경건주의자들에게는 교회의 도그마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 이성(Menschenverstand)’을 갖춘 개인의 이성적인 ‘성찰(Nachdenken)’이 강조되었다(서용좌, 2008: 132). 이성이랄 수 있는 ‘머리’에 ‘가슴’(감성, 마음)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감성은 이성 혹은 오성의 편에 서서 이성을 보완해야하는 의미였다. 즉 이성은 계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밝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독일 계몽주의의 대표작가 레싱은 18세기 종교 논의에서 늘 문제가 된 계시와 이성의 문제를 이러한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싱의 사상은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면서도 신비주의적 경향도 내포하고 있다.

18세기 말 독일에서는 무신론과 계시종교 간의 제 3의 길로 자연신적 계몽주의 변종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신이 더 이상 기독교의 인격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파악할 수 없는,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를 이신론(理神論)이라 하였는데, 독일에서는 모세스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과 프리드리히 니콜라이(Friedrich Nicolai), 그리고 헤르만 자무엘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¹⁰)를 들 수 있다.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인간을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계몽의 꿈은 예상과는 달리 결국 원래의 기대에 전혀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에 의해 직접 설파된 ‘원시기독교’, 루터가 보여주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 생활 속의 ‘가슴 신학(Herz-Theologie)’을 추구한 친첸도르프를 비롯한 경건주의자들의 복음주의 정신, 또 당시 또 다시 교리화 되어버린 루터교도들의 추상적 교리를 떨쳐버리고 이성에 입각한 인간적 신앙을 추구한 작가 레싱 등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과 사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오늘날은 경건과 계몽 둘 다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바처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10) 레싱과 친분이 있었던 라이마루스는 종교의 신랄한 비판자였으며 대표적으로 『신의 이성적 숭배자를 위한 변론』이 있다.

참고문헌

- 김문기 역. (2015). **경건주의(1675~1800)**, Schicketanz, Peter. (2002). *Der Pietismus von 1675 bis 1800*. 천안: 호서대학교출판부.
- [Kim, M. G. (2015). *Der Pietismus(1675~1800)*. Cheonan: Hoseo University Press. Trans. Schicketanz, Peter. (2002). *Der Pietismus von 1675 bis 1800*.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김병욱 외 (2001).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Kim, B. O. (2001). *Literaturelexik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영선 (2013). **경건주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Y. S. (2013). *Understanding pietism*.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유동 외 역. (1996). **계몽의 변증법**, 3. Aufl., Horkheimer, M., Adorno, Th. W.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서울: 문예출판사.
- [Kim, Y. D. et al. (1996). *Dialektik der Aufklärung*. Seoul: Moonye Publishing. Trans. Horkheimer, M., Adorno, Th. W.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Fischer.]
- 김주연 (1991). **독일문학의 본질**, 서울: 민음사.
- [Kim, J. Y. (1991). *The essence of German literature*. Seoul: Minumsa.]
- 박민수 역. (2008). **세계철학사**, Störig, Hans Joachim. (1999).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서울: 자음과모음.
- [Park, M. S. (2008).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Seoul: Jaem&Moeum Publishing. Trans. Störig, Hans Joachim. (1999).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Frankfurt: Fischer.]
- 박혜숙 (2008). **프랑스 문학 입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Park, H. S. (2008). *Introduction to French Literature*.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서용좌 (2008). **도이칠란트 · 도이치문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Seo, Y. J. (2008). *Deutschland · Deutsche literatur*.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안삼환 외(2016). **새 독일문학사**, 서울: 세창출판사.
- [Ahn, S. H. et al. (2016). *Neue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Seoul: Sechang Publish.]
- 이은재 역. (2009). **경건주의와 신학자들**, Lindberg, Carter. (2005). *The pietist theologians*. 서울: CLC.
- [Lee, E. J. (2009). *The pietist theologians*. Seoul: CLC. Trans. Lindberg, Carter.]

- (2005). *The pietist theologians*. USA/UK/Australia: Blackwell Publishing.]
- 정인모 (2012). **독일문학감상**, 서울: 새문사.
- [Jeong, I. M. (2012). *appreciation of German Literature*. Seoul: Saemoonsa.]
- 정인모 (2017). 독일경건주의 운동 고찰, **독일언어문학**, 78, 237-255.
- [Jeong, I. M. (2017). Der deutsche Pietismus als evangelische Reformbewegung,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Vol.78, 237-255.]
- Barth, Karl(1960). **Kirchliche Dogmatik IV/1**, Zürich.
- Brecht, Martin & Peucker, Paul(2006). **Neue Aspekte der Zinzendorf-Forschung**, Göttingen.
- Bouman-Komen, Truus(2009). **Bruderliebe und Feindeshaß**, Hildesheim.
- Kant, I.(1976). **Was ist Aufklärung?**, Stuttgart.
- Langen, A.(1963). **Zum Problem der sprachlichen Säkuralisation in der deutschen Dichtung des 18. und 19. Jahrhunderts**, Deutsche Philologie Bd. 83, Sonderheft, Bonn.
- Lessing, Gotthold Ephraim(1970). **Werke in 8 Bänden**, hg.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70ff. Bd. IV.
- Ders.(1970). **Werke in 8 Bänden**, hg.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70ff. Bd. VII.
- Ders.(1970). **Werke in 8 Bänden**, hg. Herbert G. Göpfert, München 1970ff. Bd. VIII.
- McCormack, Richard(2005). **Luther, Zinzendorf and Wesley**, Rev. Peter Anstadt, D. D.
- Sauder, Gerhard(1980). **Erbauungsliteratur, in: Deutsche Aufklärung bis zur Französischen Revolution 1680-1789**, hg. v. Rolf Grimmiger, Wien.
- Schneider, Johannes(1953). **Lessings Stellung zur Theologie vor der Herausgabe der Wolfenbüttler Fragmente**, Gravenhage.
- Schrader, Hans-Jürgen(2006). **Zinzendorf als Poet**, in: Neue Aspekte der Zinzendorf-Forschung, hg. v. Martin Brecht/Paul Peucker, Göttingen.
- Sperber, Hans(1930). **Der Einfluß des Pietismus auf die Sprache des 18. Jahrhunderts**,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8. Jahrg.
- Stolte, Heinz(1998). **Kleines Lehrbuch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8. verbessert Aufl., 대구.
- Wallmann, Johannes(2005). **Der Pietismus**, Göttingen.
- Wellbery, David E.(2004). **German Literature**, Cambridge, London.

Willmer, Peter(1984). **Lessing und Zinzendorf: Eine vergleichende Studie zu Lessings persönlichem Glauben**, Vancouver UBC.

Zimmermann, Mattias(2002). **Der Einfluß des Pietismus auf die deutsche Literatursprache im 18. Jahrhundert - mit einer Analyse zweier Texte von N. L. Graf von Zinzendorf und F. G. Klopstock**, Norderstedt, Grin.

<https://goo.gl/images/w35S38>

논문초록

계몽과 경건의 변증법 - 18세기 독일 사상의 지형도

정인모 (부산대학교)

18세기에 등장한 독일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면이 있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조 모두 당시 교회, 교리 중심의 정통주의(Orthodoxie)에 반대해서 생겨난 신앙형태라 볼 수 있다. 물론 그 대안은 달랐지만 - 전자가 인간 머리로 이성적인 것을 도모했다면, 후자는 신의 은총을 가슴에 담아 생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 기존 루터주의자들의 정통의 교리나 인식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계몽주의자의 대표 사상가이자 작가인 레싱의 종교관과, 경건주의를 완성했고 또 그것을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친첸도르프의 신앙관을 비교 분석 하였다. 비록 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 레싱은 합리적이고도 관용적인 신앙을, 친첸도르프는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슴의 신학'을 강조한다 - 결국 둘 다가 초기 기독교 정신(Urchristentum)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통된다.

즉 머리로서의 이성과 가슴으로서의 경건이 서로 분리되고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정신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관계가 있고, 서로 소통하며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계몽주의, 경건주의, 레싱, 친첸도르프, 변증법

